



보도 일시	즉시	배포 일시	2023. 2. 22.(수) 14:00(총 3매)
담당 부서	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장 조경모 (033-650-0420)
		담당자	주무관 김희원 (033-650-0424)

##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도, 다분야 협력과 융합을 위한 노력

- 「기후위기시대,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강원포럼」 개최 -

□ 강원지방기상청(청장 박훈)과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(단장 강신수)은 2월 22일(수), 강릉(세인트 존스 호텔)에서 「기후위기시대,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강원포럼」을 공동 개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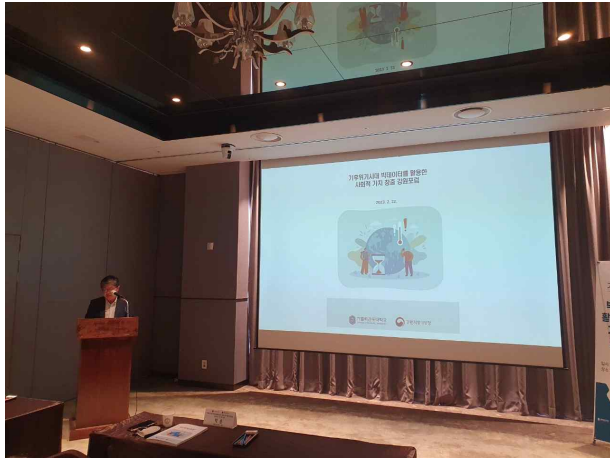
※ 참여기관: 강원지방기상청,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, 강릉과학산업진흥원, 강릉시, 강릉원주대학교,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, 강원ICT융합연구원, 강원연구원,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, 강원테크노파크, 동부지방산림청, 동해수산연구소, 한국관광공사,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기상산업기술원, 한국에너지공단, 한라대학교

□ 이번 포럼은 산·학·연·관 17개 기관의 담당자 및 전문가와 민간사업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, 올해 6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기후변화와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분야(포럼 참여기관)의 우수성과, 정책, 업무 소개와 민간 분야(기상사업자, 협력업체)의 기술 공유 및 협력 방안을 토의하였다.

○ 주요 내용으로 △엑셀러레이팅과 모태펀드 기반 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통한 영동창업벨리 활성화를 위한 제언(삼영회계법인 이현상 이사)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

○ 공공분야에서 △탄소중립시대, 강원특별자치도 정책 방향(강원연구원), △기상청 API허브를 활용한 기상기후데이터 처리(국가기후데이터센터), △동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조사(동해수산연구소), △관광, 데이터의 바다를 만나다(한국관광공사), △LX 플랫폼 ‘디지털트윈’ 소개(한국국토정보공사)를 주제로 공공기관의 정책과 업무공유가 이어지고,

- 민간분야에서 △ 스마트시티 도로위험기상정보서비스(주식회사 월드텍), △ 스마트시티 기상데이터와 녹지 관리 및 탄소 저감 솔루션(주식회사 카탈로닉스) △ 신기술을 이용한 농축산 및 관광분야의 지역특화 기상융합서비스 사업화 성과(주식회사 에어텍)를 주제로 신기술 및 활용성과가 발표되었다.
- 강원지방기상청과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21년 처음 포럼을 개최하여 올해 세 번째 해를 맞고 있으며,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간 협력과 융합으로 정책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- 박훈 강원지방기상청장은 “새롭게 시작하는 강원도의 사회적 환경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해 각 분야의 기관과 단체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” 라고 말했다.
- 붙임 「기후위기시대,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강원포럼」 사진



청장님 인사말씀



초청강연 1



초청강연 2



단체사진